

# 살던 곳서 건강한 노후를…‘목포돌봄 365’ 준비 박차

3월 시행 통합지원회의…전담인력 배치·13개 서비스 지원 확정

목포시가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포돌봄 365’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가 최근 3월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 사업 추진 세부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 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들에게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 제도이다.

목포시는 최근 통합돌봄전담팀 주관으로 관련 사업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목포돌봄365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행정동 주민센터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2명에 대해 각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방안과 지원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총 13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연계가 확정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사업은 유관 기관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첫 통합지원회의를 계기로 목포형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상자들이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열분해 시설 등 악취 유발 우려가 있는 업체가 밀집한 영광 군서농공단지 전경.

## 영광 군서농공단지 악취 관리 강화 나선다

관리지역 지정…주민 숙원 해소

까지 악취 방지계획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내년 1월까지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기존보다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광군은 군서농공단지 내 열분해 시설 등 악취 유발 우려가 큰 4개 업체가 밀집한 6필지 (2만856.8㎡)를 지난 8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약사업인

‘군서 송립 폐수처리장 악취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반복되는 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

4곳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7월

까지 악취 방지계획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내년 1월까지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기존보다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광군은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한 수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해 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진 만큼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해남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0억9000만원 달성

매년 성장세…누적 25억7000만원

AI홍보 콘텐츠·현장 기부 등 성과

해남군의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10억9000만원을 달성하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 25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는 2023년 6억4000여만원, 2024년 8억4000여만원에 이어 2025년 10억9000여만원을 모금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처음으로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 전국 각지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현장 중심의 기부 활성화,

기부자 예우 강화를 통한 재기부 유도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대구민 홍보 강화를 위해 해남만의 특색을 담은 AI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데 이어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해 차별화된 홍보 부스 22개소를 운영, 1600만원의 모금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기관·단체·향우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명절과 연말 등 집중 모금을 위한 기부와 특선물 연계 협업 이벤트 등을 추진하며 기부 참여 저변을 넓혔다.

기부자 예우 및 관리를 통한 재기부 유도도 성과를 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현액식을 개최하고,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기금 사용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재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해남군은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맞춤형 담례품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

해남군 대표 농수특산물로 구성된 담례품에는 74개 업체, 114개 품목이 참여했으며 기부자의 선호를 반영한 해남 캐릭터 인형·키링 등 특화 상품을 제작해 기부 만족도를 높였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식재료 제공과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냉장고를 부탁해’ 등 4개 지정기부 사업도 성공리에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올해는 5개 사업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기금 운영과 해남만의 강점을 살린 정책으로 기부자가 다시 찾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군 제설 트랙터 안전망

11개 읍·면 운용 81대

‘단체보험’ 가입 완료

영광군이 겨울철 폭설 시 마을 제설을 책임지는 트랙터(사진)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광군은 제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제설 트랙터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제설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마을은 길과 이면도로에서는 읍·면별로 트랙터를 보유한 주민들이 제설 작업을 맡아왔다.

하지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트랙터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영광군이 가입한 단체보험은 관내 11개 읍·면에서 지정한 제설 요원 81명이 운용하는 트랙터 대상이다.

농기계 손해는 물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본인과 상대방의 피해까지 보장해 준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고 걱정 없이 제설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도로·상하수도 등 공간정보 한눈에

무안군이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축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물 등 군 전반의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활용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 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에 탑재된 ‘나만의 지도’ 기능을 활용하면 부서별로 보유한 공간정보를 손쉽게 등록·관리·공유할 수 있어 현장 중심의 업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종합공부, 건축행정, 도로명주소 등 주요 행정시스템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통계 자료와 시설물 위치 정보를 결합한 공간분석 기능도 제공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영암군, 조훈현배 전국 어린이 바둑왕전 개최

2월 28부터 3월 1일까지 열어

4월 4일 벚꽃 마라톤대회도

영암군이 올해 ‘조훈현배 전국 어린이 바둑왕전’과 ‘영암 벚꽃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영암군은 체육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4억원 늘어난 29억 8000만원을 확보해 스포츠 이벤트에서 관광으로 이어지는 마케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전국 최강 김민재·최정만 선수의 영암군민속씨름단, 조훈현 국수와 세계 1위 신진서 기사가 이끄는 마한의 심장 영암 바둑팀을 중심으로 ‘스포츠 강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군은 지역 대표 선수 명성과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스포츠 이벤트로 전국 체육인과 가족의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제1회 조훈현배 전국 어린이 바둑왕전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된다.

군은 2029년 견립 예정인 국제바둑연수원 흥보에도 나선다. 국제바둑연수원은 인공지능 바둑교육원, 국제대국실, 인재교육관 등을 갖추고 국내·외 프로, 유소년 선수 연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영암 벚꽃 마라톤대회는 4월 4일 월출산국립공원 경관 아래 펼쳐진 군서면 100리 벚꽃길을 배경으로 열린다.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이기도 하다.

우승의 영암군수는 “우리군은 지난해보다 체육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다”라며 “스포츠 이벤트가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1인당 10만원 쿠폰’ 완도치유페이 2월 재개

영수증 제출 시 쿠폰·포인트 지급

완도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힐링하기 좋은 곳, 치유의 섬 완도’를 슬로건으로 완도치유페이 관광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완도치유페이’는 오는 2~4월, 9~11월에 시행된다.

이 제도는 1인 이상 관광객이 치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광지를 방문한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 3장, 해시태그, 50자 이상의 글을 남기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장 안내소와 누리집을 통해 인증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숙박,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특산품 쇼핑몰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3만원, 20만원 이상은 6만원, 30만원 이상은 9만원이다.

섬 지역 여행 시에는 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완도치유페이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만 5000건, 4만 3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발행됐던 완도치유페이.

소비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관광객의 총 소비액은 60억원, 전국 기준 생산 유발 효과는 201억원, 완도군에서 발생한 효과는 130억원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치유페이가 관광객에게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생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

## 목포시의회, 민간위탁 여론조사 제도화 추진

“시민 의견 반영 체계 마련”

목포시의회가 행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간위탁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고경우 시의원은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 미준수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목포시 민간위탁 사업의 연간 위탁료가 약 296억원에 이르지만, 조례에 따른 지도·감